

## 카하마르카의 온천 - 페루의 툼베스 여행(3)

이 호 인

### 푼타 살

아침이 되어 푼타 살(Punta Sal) 해변을 향해 일찍 집을 나섰다. 아주머니께서 계속 아침 먹고 가라고 하셨지만, 이미 어제 작별인사도 나누었고, 새벽까지 이야기 하느라 다들 늦게 잠들었기 때문에, 깨우기 싫어서 아주머니에게만 살짝 인사하고 나왔다.

사실 툼베스에서 가장 유명한 해변은 망코라(Mancora) 해변이다. 이 해변은 툼베스뿐만 아니라, 페루 내에서도 유명한 해변인데, 그만큼 관광객들도 꽤 모이는 곳이다. 그래서 원래 그곳을 가 보려 했지만, 리마에서 알아본 결과 푼타 살이 더욱 아름답고, 사람들도 그리 많지 않아서 시끄럽지 않게 바다를 즐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결국 그곳을 가보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푼타 살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버스 정류장으로 가보니 아침부터 그곳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가격을 물어보니 역시나 예상한대로 바가지를 씌우려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이유는, 페루 생활 6개월 동안 익힌 노하우 덕분이다. 베를리나 그 외 다른 누구에게도 아무 정보를 못 들었기 때문에, 버스 정류장으로 가기 전에 거리에 있는 경찰에게 푼타 살까지 가는 버스비를 물어보았다. 혹시나 해서 시장에서 과일장사 아저씨한테 한번 더 물어보고 온 것이다. 내가 그런 얘기까지 다했더니, 마치 뭔가 이상하다는 듯이 버스비를 잘못 알려준 것 같다고 시침을



푼타 살

떼더니, 마지못해 태워주는 식으로 그림 그 차비를 내고 타라고 했다. 버스에 올라타고 나서 내 또래로 보이는 현지인에게 살짝 물어보니 나와 같은 차비를 냈다고 한다. 그 현지인도 내가 왜 물어보는지 눈치 채고, 버스기사 아저씨 안 들리게 내 귀에 가까이 붙어서 살짝 이야기 해주는 데,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보여서 혼났다.

푼타 살에 도착해보니 너무나 아름다웠다. 탁 트인 바다와 모래사장은 전날 과도한 술자리로 인해 피곤에 찌든 몸마저 붕붕 뜨는 느낌이 들게 할 정도로 상쾌했다. 파도소리를 들으며 해변을 걷다보니 해수욕을 하는 사람이 간간히 눈에 띈다. 일단 점심을 먹고 숙소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근처 레스토랑을 찾았다. 일전에 베를리가 카바이트 델 마르(Caballito del mar)라는 숙소

를 추천했기 때문에 바로 그 쪽으로 가보았다. 베를리의 말대로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곳에 깔끔하게 지어진 숙소였다. 숙박료가 너무 비쌀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가격을 물어보니, 성수기 요금이 적용되면 300솔, 한화로 약 12만 원정도이지만, 비수기 요금이 적용되어서 140솔에 해주겠다고 했다. 이럴 때 아니면 이런 곳에 언제 묵어보랴. 바로 묵기로 했다. 만약 한국이었으면 정말 3배는 비싸게 받아도 예약이 차고도 넘칠 것 같은 곳이었다. 눈앞에 펼쳐진 드넓고 푸른 바다, 숙소 안에서도 들리는 파도소리, 멋진 대나무와 나무로 지어진 건물과 놀이시설 및 풀장까지 갖춰진 정말 낭만적이고 멋진 곳이었다.

숙소에서 짐을 풀고 수영복으로 갈아입은 후 다시 바다로 나왔다. 바닷물을 차갑고 파도소리는 시원했다. 그런데 의외로 수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 없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바다가 보이는 숙박업소 안에 설치된 풀장에서 수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보였다. 처음에는 굳이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숙소 내 풀장에서 수영하는 이유가 뭔지 몰라 어리둥절했지만, 바다에 직접 발을 넣어보고 조금 깊숙이 들어가다 보니 알 것 같았다. 한국의 경우 해변에 암초가 그리 많지 않다. 근처에 조금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모여서 수영하는 곳에는 거의 없다. 따라서 너무 깊이 들어가거나 파도에 휩쓸리지만 얇으면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이 드가까 위험하진 않다. 하지만 이곳은 아니다. 해변의 끝부터 끝까지 암초가 엄청 많이 형성되어 있다. 조금만 깊숙이 들어가서 건다보면 다리와 발이 긁혀서 피가 날 정도의 암초가 많이 있어서 수영하기에 좋은 바다는 아니었다. 나도 바닷물이 허벅지정도까지 올 때까지 들어가서 수영하다가 실제로 암초 때문에 발바닥이 살짝 까지기도 했다. 상황이 이러하니 바다는 시각적, 청각적 효과로 만족하고 수영은 안전하고 쾌적한 풀장에서



푼타 살의 카바이토 델 마르(Caballito del mar) 호텔 객실(위)과 발코니(아래)

하는 사람이 많은가보다. 물론 그림에도 불구하고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몇몇 있었지만 말이다.

바다에서 한참을 수영도 하고 발만 바닷물에 담근 채 해변을 거닐다 날이 어두워질 무렵 숙소로 돌아왔다. 숙소로 돌아오면서 주위의 건물들도 살펴보았는데, 특이하게도 주위에 숙박업소나 레스토랑이 대부분 대나무와 같은 것으로 지어져 있었다. 벽돌로 지어진 건물은 손에 꼽을 정도였고, 대부분 대나무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대나무보다는 두꺼운 나무 재료로 건물이 지어져 있었다. 숙소 주인아저씨에게 물어보니 에콰도르에서 싸게 수입되는 재료란다. 툼베스가 에콰도르와 접해 있는 국경지역이기 때문에 벽돌보다 시원하고 값 싼 대나무와 비슷하게 생긴 재료를 수입해서 건물을 지은 것이다. 숙소 안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간단히 저녁을 먹고 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발코니로 나가서 파도소리를 들으며 바다를 바라보았다. 이미 날이 저물어 하늘과 바다가 구분 안 되었지만, 그냥 그 자체만으로 너무나 아름다웠다.

## 치클라요

다음날 아침이 되어 바로 치클라요(Chiclayo)로 가기 위해 조금 서둘러 툼베스로 가는 버스가 지나가는 버스정류장으로 나섰다. 치클라요로 가는 버스가 툼베스 시내에 있기 때문이다. 부랴 부랴 버스를 타고 툼베스로 돌아와 치클라요로 가는 버스로 갈아탔다. 일부로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이번에 탄 버스는 정말 어떤 관광안내책자에도, 심지어 그토록 자세하게 나오기로 유명한 『론리 플래닛』(Lonely Planet)에도, 만나와있는 오로지 현지인만이 이용하는 버스였다. 단지 바로 시간이 되는 버스를 고르다 보니 이런 버스를 타게 된 것이다. 사실 나에겐 이런 버스가 더

심리적 안정을 주기도 하지만 전부 현지인만 있는 장거리 버스인 만큼 다소 당황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모두들 짐 한 보따리씩 가지고 구수한 냄새들을 풍기며 왈자지껄 시끄럽게도 앉아있었다. 다른 버스와 확연이 달랐던 점은 버스가 출발한 후, 20분정도 간격으로 잡상인들이 타고 내리기를 반복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목적지 가는 동안 중간 중간 길에서 현지인들이 타고 내리기를 반복했다. 자리가 없으니 어떤 아주머니는 짐보따리를 내려놓고 그 위에 앉기도 했고, 어떤 아저씨는 그냥 바닥에 앉기도 했다.

매우 소수라도 외국인이 타기도 하는 버스는 이렇게 중간에 멈추고 손님을 또 태우고 내리게 한다거나, 잡상인이 탔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처음엔 버스가 멈출 때마다 무슨 문제가 생겼나 걱정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니 적응이 되어서 그러려니 하고 창문 밖만 내다보고 있었는데, 한 명의 특이한 잡상인이 내 귀를 쫓긋 세우게 했다. 약을 파는 약장수였는데, 말쑥하게 차려입은 옷차림에 청산유수와 같은 말솜씨, 게다가 사진과 같은 자료까지 보여주며 샘플 약품을 공짜로 주는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것을 보니 여간 경험이 있는 약장수 같지 않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약장수가 팔려고 가져온 약품이 한국에서 직수입한 약품이라는 것이다. 약 소개를 하는 내내 한국에서 만든 것이라고 강조하는데, 얼마나 황당하던지...

일단 진위여부를 확인해보기 위해 나도 샘플 약을 받아보았다. 한국에서 바로 직수입해온 거라고 하는데, 약 표지에는 한글도 영어도 없고 이상한 중국어처럼 보이는 글자만이 써있었다. 아무래도 간체자로 쓰여진 것 같았다. 게다가 'MADE IN KOREA'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데, 끝까지 한국 약품이란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았을 때, 멀쩡한 한국인 관광객이 그런 버스에 탈 일이 없으니 나 같은 동양인이 있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고 얘기하는



것 같았다. 내가 한국인이고 이거 절대 한국 약품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내 짧은 스페인어로 오히려 청산유수와 같은 약장수의 말씀씨에 이상한 사람 취급만 당하게 될 것 같아 그냥 잠자코 있었다.

이런 약장수가 파는 약의 효능은 여기나 한국이나 똑같다. ‘만병통치약’. 여성 질환환자 사진부터 암환자 사진까지 모든 환자들의 사진을 총 망라해서 보여주며, 이 약을 먹고 나았다고 소개하는 것이다. 좋게 생각해보면 그만큼 이런 시골에서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 것 같았지만, 오히려 약의 효능이 없음이 확인되었을 때 한국에 대한 인식이 나빠질 것 같아 안타까웠다. 실제로 효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겉으로 보았을 때는 한국제품일 가능성이 1%도 없어 보였기 때문에, 사기인 것을 알리지 못하는 내 자신이 괜히 부끄럽기도 했다. 그나마 바로 약을 산 사람이 없어서 조금 마음이 놓였지만 말이다.

어쨌든 이런 저런 잡상인들이 파는 물건들 보고 바깥 풍경도 보면서 오다보니 금세 치클라요에 도착했다. 이곳에는 카하마르카(Cajamarca)를 가기 위해 중간에 잠시 쉬기 위해 들린 곳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시내를 좀 둘러보며 걷기 위해 중심지로 나가 보았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도시가 훨씬 컸다. 리마에 있는 대형할인 마트나 쇼핑몰도 전부 다 있었고, 중앙광장도 멋지게 형성되어 있었다. 쇼핑몰이 형성된 곳을 가서 구경을 좀 하다 보니 영화관이 있었다. 별 생각 없이 무슨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지 가까이 가보았다가 깜짝 놀랐다. 내가 한국인이라서 자꾸 한국과 관련된 것이 눈에 띄는 것인지, 진짜 한국의 것이 오늘날 세계로 많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인지 정확히 판단할 순 없겠지만, 영화 <괴물>이 상영되고 있었던 것이다. 너무 반가운 마음에 가까이 가보니, 한 현지인 아주머니와 꼬마 남자아이가 있었다. 아이는



치클라요의 한 쇼핑몰에 위치한 영화관에 내걸린 한국영화 <괴물> 포스터

계속 <괴물>이 보고 싶다고 손짓하면서 조르고 있었는데, 포스터 사진이 아이가 보기에 좀 무리일 꺼 같아보였는지 아주머니가 저건 무서운 영화라며 다른 영화를 보자고 타이르고 있었다.

당장 달려가서 이거 정말 재미있다고 이야기 해주고 싶은걸 꼭 참느라 혼났다. 페루에서 가끔 DVD를 빌리러 가보면 한국영화도 종종 볼 수 있다. 그리고 김기덕 감독의 영화는 그 예술성으로 상을 받은 적이 많아서 인지 DVD대여점 주인도 “기дук 김~ 기дук 김~”하면서 알 정도로 나름 인지도가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렇게 실제로 영화관에서 한국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 것은 처음 봤기 때문에, 상당히 신선하고 왠지 모르게 자랑스럽기도 했다. ‘아주머니는 후회할겁니다. 제발 대박나라. 우리나라 영화! 화이팅!’



## 카하마르카

치클라요에서 점심 겸 저녁을 해결한 후 다시 카하마르카(Cajamarca)로 향하는 버스를 타기 위해 터미널로 향했다. 카하마르카는 로스 바뇨스 델 잉카(Los Baños del Inca)라는 온천이 있는 곳으로 정말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다. 잉카의 수도였던 쿠스코에서 이곳 카하마르카까지는 현재 버스를 타고 오면 약 35시간 정도는 걸릴 것이다. 그런데, 그 옛날 잉카문명이 자리 잡고 있었을 때, 이동 수단이 매우 부실했던 그 시절, 잉카의 왕들은 온천을 위해 카하마르카까지 왔다고 한다. 도대체 카하마르카의 물이 얼마나 좋았으면……. 궁금증과 기대감을 가지고 버스에 올랐다. 밤늦게 버스에 탄 탓에 카하마르카에는 새벽에 도착하였다.

상쾌한 새벽 공기를 마시며 택시를 타고 아르마스 광장으로 나섰다. 너무 이른 아침이라 그런지 대부분의 상점이나 레스토랑은 문을 닫고 있었다. 잠시 광장 주위 벤치에 앉아서 좀 쉬기로 했다. 청소부아저씨들이 나와서 청소하기 시작하고, 경찰들이 하나, 둘씩 나와서 광장을 순회하기 시작할 무렵 주위 상점들도 문을 열기 시작했다. 먼저 근처 레스토랑에서 간단하게 아침을 먹은 후, 광장 근처의 투어회사를 가보았다. 로스 바뇨스 델 잉카를 포함하여 카하마르카의 다른 명소도 함께 관람할 수 있는 묶음 투어상품이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다. 투어회사 직원은 나에게 콤베마요(Cumbemayo)라는 곳과 로스 바뇨스 델 잉카를 가는 투어상품을 소개해 주었다. 가격도 적당하고 콤베마요라는 곳은 어떤 곳인지 궁금하기도 하여 그렇게하기로 했다. 잠시 기다렸다가 바로 차를 타고 출발했다.

먼저 콤베마요로 출발했는데, 구불구불한 산길을 한참을 올라가서야 도착할 수 있었다. 페루가 멋진 자연경관과 훌륭한 문화



카하마르카의 콤베마요

유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이토록 멋진 곳이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로 환상적이었다. 가이드의 설명을 들어보니 이곳은 해수면으로부터 약 3400미터 위에 위치해 있는 바위로 된 숲(Bosque de piedras)으로써, 페루의 고산지대의 가장 중요한 고고학적 의미가 있는 곳으로 여겨진다고 한다. 바위로 된 숲이라는 말에 걸맞게 정말 수많은 형태의 바위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다. 크기도 천차만별이어서 고층 아파트 크기의 바위가 있기도 했다. 모두다 인공적인 힘이 하나도 작용이 안 된, 오로지 자연적으로 형성된 바위란다. 신기하게도 거북이 모양부터 다양한 사람 얼굴 모양, 기도하고 있는 모습 등 다양한 형태의 바위가 많았다.

게다가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발견'이라는 용어에 대

해선 많은 논란이 있지만) 이전의 가장 중요한 유적지라고 하는 수로도 있었다.

이 수로는 잉카보다 훨씬 앞선 시기의 차빈 문명(Chavín, 기원전 9세기 ~ 기원전 2세기)시대에 만든 것으로 추정한다. 차빈 문명의 유적지와 유물들은 잉카와 비교해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평가하는데, 이 수로 역시 일전에 쿠스코의 마추픽추에서



차빈 문명 시대의 수로(쿰베마요)

본 잉카의 수로에 못지않게 훌륭해 보였다. 직접 바위를 깎아서 어마어마한 길이의 수로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물의 흐름이 끊기지 않게 바위를 적절한 각도로 깎은 흔적과 물의 속도까지 조절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바위 모양은 탄성을 자아내게 했다. 나 또한 페루하면 통상 잉카만을 떠올렸지만, 사실 페루에는 잉카 이전에도 뛰어난 문화가 많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점심때가 다되어 점심을 먹으려 다시 시내로 투어버스를 타고 내려왔다. 투어회사에서 지정한 레스토랑에 가서 점심을 먹고 잠시 쉬었다가 그 이름도 유명한 로스 바뇨스 델 잉카로 향했다. 잉카의 왕들이 쿠스코에서 이 먼 곳까지 찾아오게 만들었던 로스 바뇨스 델 잉카를 내가 직접 느껴보러 간다는 생각에 묘한 흥분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도착해보니, 온천의 형태가 다양하게 있었다. 한명에서 두 명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는 개별실과 4~5명의 가족들을 위한 가족실과 단체를 위한 큰 온천 탕, 그리고 몸에 좋다고 하는 다양한 성분들이 함유된 온천탕과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공간도 있었다. 난 개별욕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개별욕실을 이용하기 위한 티켓을 구매하고 로스 바뇨스 델 잉카로 들어갔다.

먼저 넓은 공간의 외부에 있어서 연기에 휩싸여 있는 외부 온천이 눈에 띄었다. 잉카의 느낌이 나도록 장식이 되어 있는 정사각형 모양의 탕이 네 등분으로 되어 있었는데, 김이 어찌나 많이 나던지 바라보기만 해도 몸이 후끈 달아오르는 것 같았다. 그 연기를 들이 마시기만 해도 웬지 힘이 솟는 것 같은 환상에 빠진 채 개별욕실로 향했다.

가족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수영시설 등을 지나서 개별욕실이 있는 곳에 도착했다. 개별욕실은 두 명 정도가 온천을 즐기기에 딱 좋은 크기의 탕과 물건을 놓을 수 있는 작은 선반, 그리고 옷을 걸어 놓을 수 있는 옷걸이와 작은 창문이 있는 방이었다. 탕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외부와 독립되어 방이 따로 있고 그 안에 탕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연인들이나 부부가 이용하기에 매우 적합해 보였다. 한 사람 혹은 연인이나 부부가 이용하고 나오면 다음 사람이 이용하기 전에 복도에 있는 청소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청소도 하고 물도 새로 갈기 때문에 위생문제도 좋아보



온천, 로스 바뇨스 델 잉카

였다.

제한시간은 대략 40분정도인데, 누가 시간을 체크하거나 감시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그 시간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대략적으로 정해놓은 시간이다. 기본적으로 샤워하고 탕에 물 받아서 온천을 즐기는 시간으로 그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설정해 놓은 시간 같았다. 나의 경우 한 시간 정도 있다가 나왔다. 아직 팔팔한 청춘인지라 물의 좋은 정도를 정확히 피부로 와 닿게 느낄 수는 없었지만, 내 기준에서는 매우 좋은 것 같았다. 일단 물이 매우 부드러웠고, 온몸을 물에 담그는 순간 기분 때문인지는 몰라도 피로가 말끔히 씻기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였다.

온천을 즐기고 난 뒤 거울을 보니 피부 각질도 다 말끔해진 모습이였다. 너무나 상쾌한 기분과 가벼운 몸으로 투어회사 차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리고 다시 카하마르카 시내로 돌아왔다. 이날도 역시 전날처럼 저녁 버스를 타고 트루히요(Trujillo)로 갈 계획이었기 때문에 서둘러 저녁을 먹고 버스 터미널로 가서 트루히요로 가는 버스에 올랐다. 페루에서 리마, 아레키파에 이어 제3의 도시라고도 불리는 트루히요, 그곳에는 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

이호인 - 고려대학교 서어서문학과 재학

---